# 강진군, 월출산에 친환경 명품 야영장 조성한다

### 총사업비 250억 투입 예정
### 숲체험 인프라시설 구축 등

강진군의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월출산 내 국내 최고 수준의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강진군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고의 명품 야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약 2만5000평 부지에 명품 야영장 100동, 명품 카라반 15동을 설치한다.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를 결합한 체험시설인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시설,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옥판봉 탐방로 개설 등이 추진된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명품 탐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군은 정부예산에 반영된 만큼 내년부터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지 선정과 설계를 서둘러 진행하고, 2025년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처음 강진원 군수가 월출산의 수려한 경관에도 불구하고 타 국립공원 대비 야영장 인프라가 부족해 관광객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점에 착안, 국립공원공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난 5월 군과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사업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해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를 매달 두 번씩 찾아가 정부예산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한 끝에 큰 결실을 맺게 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국가 R&D 예산 삭감과 지방정부의 현안 사업비 대다수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 속에 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힘을 모아 포기하지 않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선정(330억원 확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112억원 확보) 달성이라는 큰 성과와 더불어 2023년의 마지막 며칠을 남기고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돼 매우 기쁘다"며 "2024년의 지방 소멸의 돌파구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확정한 만큼,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관광객 대거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 2024 노인일자리 상시 모집
### 영암시니어클럽

영암시니어클럽(관장 장영범)은 '2024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영암읍 남풍리 고령자복지주택 사무실에서 상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유형별로 사업을 분류하면, 공익활동형은 △공공시설관리지원 △스쿨존지킴이 △학교환경지킴이이다.

사회서비스형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월출산 시니어 탐방플러스 △시니어 국민생활 시설점검원 △시니어 컨설턴트 △시니어 기자단이 있고, 시장형은 △커피박 업사이클링 △기찬밥상이 있다.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사업단별로 60세 이상의 영암군민이 참여할 수 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참여자는 2024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선발되며, 안전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한 다음 사업에 참여한다.

참여 희망 어르신은 영암시니어클럽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안내는 061-473-1300에서 한다.

영암시니어클럽의 20명 어르신은 올해 '커피 찌꺼기 새활용 사업'에 참여했다. 커피 찌꺼기로 친환경 탈취제를 만들어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나눠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영암=이병영 기자

## 취약계층 라면 47상자 기탁
### 목포시 이로동 용인대태권도

최근 목포시 신안인스빌 아파트 상가 內(내) 용인대태권도(대표 천세용)가 이로동행정복지센터에 라면 47상자를 전달했다.

26일 목포시 이로동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진 이번 기부는 태권도 학원 재원생들이 직접 참여한 후원 행사로, 각 가정에서 라면을 자율적으로 구매해 십시일반 나눔의 마음을 모았다.

자율적으로 참여한 기부행사는 총 56명의 아동들이 라면 47상자를 직접 이로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해주었으며 이는 겨울철 홀로 지내실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천세용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준비했다"며 "아이들의 작은 나눔이 이웃에게 큰 사랑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설 이로동장은 "매년 정성스러운 나눔을 실천해주신 대표님과 직접 가져다준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고맙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이로동 용인태권도가 최근 이로동행정복지센터에 라면 47상자를 전달했다. 목포시 이로동 용인태권도 제공

## 강진군, 전국 유일 군 단위 공모 선정 국비 5억 확보
### 특별교부세 역량 평가 결과

강진군이 정부의 각종 공모와 평가에서 잇따라 선정되거나 최고 평가를 받아 연일 낭보를 전하고 있다.

26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슬기로운 동네생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광역시·도의 1차 심사를 거쳐 도전한 전국 14개 지자체 가운데 강진군이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전남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어김없이 실력을 발휘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특별교부세로 해당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량과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는가로 승부가 났던 만큼 결과에 이목이 쏠렸었다.

이에 앞서 군은 최근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돼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강진사랑상품권이 강진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이끌고 1차 농수축산물 판매 증대까지 이끄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내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추진하는 강진군 입장에서는 지역 내에서 전액 소비되는 지역상품권의 선순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 호재로 판단된다.

강진군은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2024년에도 지역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나선다. 지역상품권 일반발행액 500억원, 반값 강진 관광 여행을 위한 발행액 40억원을 포함한 정책발행액 140억원 등 640억원을 푼다.

슬기로운 동네생활 공모사업은 '동네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온라인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활용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강진군은 '역사와 동네를 디자인하다, 전라병영캐슬플랫폼'으로 병영면을 사업대상지로 해 앞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등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인 '병영캐슬라운지'를 병영시장 앞 부지에 조성하고 당근 플랫폼을 통해 플리마켓, 지역축제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면 지역으로 도전했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 단위에서 보람이 크다"며 "병영면, 더 나아가 강진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 2024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접수
### 진도군, 1월12일까지

진도군은 해양수산사업 활성화와 어업경영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사업은 관내 어촌계, 어업법인, 어업경영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실시된다.

대상 사업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사업 등 25종으로 96억원 규모이며 신청 기간은 내년 1월8일부터 12일까지이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 확인, 진도군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누리집(www.jindo.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읍면사무소와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061-540-3557)으로 하면 된다.

진도=백재현 기자

## 완도군, 1월1일 해맞이 행사 연다
### 해양치유 산업 성공 기원

완도군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연다.

완도군은 이번 해맞이 행사를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 원년'을 기념하고 지난 11월24일 개관한 해양치유센터를 알리고자 센터 인근에 조성된 '명사십리 이벤트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는 오전 6시30분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풍물패 길놀이, 팝페라와 국악의 어우러진 퓨전 공연, 대북 타고, 소망 쪽지를 적어 친환경 풍선에 날리는 '소망 풍선 날리기' 등이 진행된다.

지역 사회단체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해 핫팩과 따뜻한 차를 포함해 완도 특산품을 넣은 떡국도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 제공하며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많은 인원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에서는 29일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완도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 체계 및 응급의료지원반, 현장대응반 등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위치한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1월1일에도 방문객들을 위해 정상 운영하며, 50% 할인된 금액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완도=최경철 기자

## 강진군, 반값 관광 활성화 논의
### 관광객 유치·지역경제 회복 목표

강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와 관련해 마련한 활성화 전략 포럼이 지난 20일 강진아트홀에서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도출하고,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강진원 강진군수,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강진군민, 관광 전문가 및 관광 관련 업종 종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원섭 목포대 관광학과 교수가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후, 관광 관련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진군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국가적 경기침체와 지방 인구감소 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특단의 대책으로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내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진의 농수특산물들까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상품으로 소비자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